

영성 독서모임 "로고스를 입다"

---

# 갈라디아서; 복음을 만나다

- 팀티머시 켈러 지음 / 김성웅 옮김 -

## 제 7 장

### 하나님의 자녀

갈라디아서 3:26~4:7

2016. 05. 25(수)





# [ 갈라디아서; 복음을 만나다 ]

## 제7장. 하나님의 자녀 (갈 3:26 ~ 4:7)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왜 특권인지,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았다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함.

### 하나님의 아들들

- ▶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 (자녀 됨: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성립)
- ▶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의미의 혁명적 본질.
  - ✓대부분 당시 고대사회 딸들은 상속 불가. (“아들”: 법적 상속자를 말함)
  - ✓복음은 남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임. (파격적으로 평등주의적)
  - ✓비슷한 표현: 남자나 여자나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

### 그리스도로 옷 입고

- ▶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
- ▶ 옷 입었다는 견해에는 4가지 놀라운 의미가 있음.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님)
  - ① 우리의 진정한 정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 (옷의 의미)
  - ② 그리스도와 긴밀한 관계에 있음. (매 순간 옷은 나와 함께함 / 그분의 임재를 연습)
  - ③ 그리스도를 닮아감. (그분의 얼굴 앞에 서있는 듯 생각하고 행동해야 함)
  - ④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심. (그분의 의와 온전하심을 입게 해주셨음)

###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 ▶ 우리는 동일하지도 않고 맞바꿀 수도 없지만 모두 “하나”임.
- ▶ 사람을 쪼개고 나누는 3가지 장벽. (①문화의 장벽 / ②계층의 장벽 / ③성의 장벽)
- ▶ 복음이 주는 자유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태도를 변화시킴. (복음이 장벽을 무너뜨림)
- ▶ 하나 됨을 어떻게 이끄는가?
  - ① 복음의 기쁜 소식이 화합을 만들어냄. (복음 안에서 특권은 세상 그 무엇보다 큼)
  - ② 복음의 부정적인 소식이 하나 됨을 만듦. (우리의 공로가 아님/은혜로 입양된 죄인)

### 그리스도를 통한 상속자

- ▶ 우리가 창조주의 아들들이라며 하늘로 치달아 오름. (3:26)
- ▶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연합되었다며 지평을 넓힘. (3:28)
- ▶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그의 입양된 아들로서 누릴 것임. (3:29)

## 더 나아가

### 때가 차매

- ▶ 상속 받은 소년을 예시.
  -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가 때가 되면 상속을 받음.
- ▶ 종과 다름이 없음..
  - ① 모세의 언약 아래서는 속죄 수단과 보증이 일반적으로 모호, 자유를 경험하지 못함.
  - ②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모두가 “율법 아래” 있음. (일정기준 / 초조함, 부담)
  - ③ 구원이 주는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자신의 업적이나 도덕적인 공로 등을 통해 그분과 관계하려는 태도)

### 그 아들의 일

- ▶ 역사 안으로 우리의 경험 속으로 그 아들을 보내심.
  - ①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속량하셨음.
  - ② 예수는 우리를 위해 “아들의 명분”을 얻어 주심. 그리스도를 통해 “아들 자격”을 받게 됨. 상속인으로서 모든 재정적, 법률적 특권이 있음. (새로운 삶의 특권) 속죄 받았지만, 하나님의 호의와 보상을 받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선한 삶을 살아야 함. (우리가 상속은 따내야 할 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물)

### 성령의 일

- ▶ 성령은 파격적으로 주관적 경험을 하게 하심.
  - 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심.
  - ② 기도의 생활/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실제적임.
  - ③ 실제적 임재를 암시함. 성령의 일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감지함.
  - ④ 아들의 일은 외부에서 우리에게 행해졌고, 성령의 일은 우리 내부를 향해서 이루어진 일. 아들과 성령은 나누어질 수 없고, 하나가 다른 하나를 감추지도 않음.

### 자녀 됨의 특권

- ▶ 자녀가 된다는 것은 “유업을 받을 자”라는 뜻.
- ▶ 확신과 담대함이 함께함.
  - 두려움은 자녀 된 것으로 이길 수 있음. (불순종 이유: 두려움)
- ▶ 아들 됨을 누리기 위해 몇 걸음 더 나아가야 함.
  - ① 아들이 하신 일을 알아갈 시간을 따로 구분해야 함. (묵상= 기도를 성경연구와, 성경연구를 기도와 연결!)
  - ② 자발적으로 온종일 부르짖어야 함.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자녀, 상속자)의 확신을 주심. 삶을 변화시키는 확신을 가득 차게 하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친 아들딸이라는 생각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주축을 이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됨은 창조의 정점이며 구속의 목표임.



## 갈라디아서; 복음을 만나다

티머시 켈러 지음 / 김성웅 옮김

### 제 7 장. 하나님의 자녀

(갈라디아서 3:26~4:7)

#### 갈라디아서 3:26~27

26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Key Word]:

복음의 절정, 특권, “하나님의 자녀”, “법적 상속자”, 연합, “아바 아버지”, 크라존(krazdon)

복음의 절정에 도착함.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왜 특권인지 이해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우리들 양자로 삼으셨음을 제대로 알아야함.

어떻게 이 상속이 우리에게 이어지는가?

그 아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법적인 자녀가 되고 새로운 신분을 받으며(갈 4:4~5), 성령을 통해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갈 4:6~7).

#### ■ 하나님의 아들들 ■

##### ▶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

-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갈3:26).
- 우리는 지금 상태로 이미 자녀 됨.
-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생이지만, 여기서 바울은 훨씬 더 깊은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이 자녀 됨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성립함.

##### ▶ 바울이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의미의 혁명적인 본질.

- 대부분 고대 사회에서 딸들은 재산을 상속할 수 없었음. 따라서 “아들”이라는 것은 여자들에게 금지된 지위인 “법적 상속자”를 말함.
- 복음은 남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상속자임.(파격적으로 평등주의적)
- 이와 비슷한 표현: 남자나 여자나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

#### ■ 그리스도로 옷 입고 ■

##### ▶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인가?

-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견해에는 4가지 놀라운 의미가 있음.

① 우리의 진정한 정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

- 옷차림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함. 일종의 제복.
- 우리의 궁극적인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

② 그리스도와 긴밀한 관계에 있음.

- 매순간 어떤 곳이든 옷은 나와 함께함.
- 매순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의식하라는 일깨움과도 같음. (“그분의 임재를 연습”)

③ 그리스도를 닮아감.

- 그분의 임재를 연습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얼굴 앞에 서있는 양 생각하고 행동해야함.
- 예수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셔서 그분의 뜻과 성령께 합당하도록 변화시킨다는 뜻.
- 우리는 그분의 미덕과 행위들을 입어야 함. 예수로 옷 입어야함.

④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심.

- 하나님은 타락 이후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옷을 주심.
- 예수의 행하심과 구원하심 덕분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사랑스럽다는 뜻임.
- 그분의 의와 온전하심을 입게 해주셨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율법을 지켜야할 필요가 없음.

■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

▶교회 안에 어떤 구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인종, 사회적인 지위, 혹은 성별이 달라도 차별이 없다는 것임.

- 예를 들어 자신들의 독특한 문화와 의식을 지녀서는 안 되고, 반드시 유대인들과 같아져야 한다는 뜻이 아님.(이것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요점 중 하나!)
- 우리는 동일하지도 않고 맞바꿀 수도 없지만 모두 “하나”임.

▶사람들을 쪼개고 나누는 3가지 장벽들.

① 문화의 장벽.

-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문화적인 차별이 없어야 함.
- 문화적으로 우월감을 드러내지 않고 서로를 받아들여야함.
- 교회 안에서 문화적, 인종적 장벽을 넘어서 서로를 사귀고 사랑해야함.

② 계층의 장벽.

- “종이나 자유인이나” 또한 경제적인 차별도 교회로 넘어와서는 안 됨.
- 세상에서처럼 계층 안에서만 교제해선 안 되며, 가난한 자들이 열등감을 느끼게 해서도, 부자들을 적대해도 안 됨.

③ 성의 장벽.

- “남자나 여자나” 이것이야말로 바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장벽이었을 것임.
- 여자는 남자에 비해 절대 열등한 존재로 여김.
-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안의 여자들도 남자와 똑같은 존재로 보아야함.



▶복음이 주는 자유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킴.

- 바울은 지금 당장 대대적으로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 일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는 복음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의 장벽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했음.

▶하나 됨을 어떻게 이끄는가? (갈3:26~27)

① 복음의 기쁜 소식이 화합을 만들어냄.

-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얻은 특권들은 크고 놀라워서 지상 최고의 유익, 상속을 능가함. (특권: 아들 됨, 성령, 완전한 의로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얻는 모든 것들).
-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경멸하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다른 이를 시기하겠는가?

② 복음의 부정적인 소식이 하나 됨을 만들어냄.

- 은혜를 입은 우리가 받은 복은 우리 공로로 획득한 것이 아님.
- 우리도 다른 모두와 마찬가지로 죄인이기에 다른 사람들 보다 낫다고 여기거나, 그들을 배제할 이유가 없음. 우리는 은혜로 입양된 죄인들임.

■ 그리스도를 통한 상속자 ■

▶(갈3:26)

- 우리가 창조주의 아들들이라며 하늘로 치달아 오름.

▶(갈3:28)

- 세상에서 당연히 갈라서는야한다고 보는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연합되었다며 지평을 넓힘.

▶(갈3:29)

- 과거를 돌아봄.
-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자기 이들 안에서 이루셨고 앞으로 성취하실 모든 것,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그의 입양된 아들로서 누릴 것임.

묵상을 위한 질문

1.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실에 관해 어떻게 느껴지는가?
2.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임을 기억하기 어려운 삶의 영역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임을 알면 그리스도의 임재를 실천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3. 내가 사는 곳에서 사람들을 구분 짓는 장벽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그것들이 어떻게 제거 되었는가?  
나는 거기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 더 \* 하나님의 자녀

# 나아가

### ■ 때가 차매 ■

▶ 바울은 우리가 양자됨을 예증하기 위해 엄청난 재산을 상속 받은 한 소년을 예로 들고 있는데, 이 소년은 어릴 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갈4:2) 있기에 “종과 다름이 없다”(갈4:1) 하지만 때가 되면 유산을 상속 받음.

- 이 시대에는 “때가 참”의 절차가 매우 중요했으며 체계가 명확하게 세워져 있었음.

▶ “어렸을 때 종과 다름이 없다”는 뜻에 대한 바울의 예시는 영적으로 3가지 다른 관점에서 적용됨.

- ① 몇몇 예외가 있긴 했지만, 모세의 언약 아래 살던 사람들은 속죄의 수단과 보증이 일반적으로 모호했기 때문에 약속된 친밀함과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음.(히10:1~4)
- ② 전 인류에 관한 것으로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있다는 뜻.(일정한 기준에 맞추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하기 때문에 초조함과 부담에 시달림)
- ③ 구원이 주는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업적이나 도덕적인 공로 등을 통해 그분과 관계하려는 태도로 돌아갈 수 있음.(선물을 받고도 대가를 지불하고 받겠다며 되돌려주는 모습과 같음)

### ■ 그 아들의 일 ■

▶ “때가 차매” 역사 안으로, 우리의 경험 속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의 “때가 차도록” 하신 분이 바로 아들이신데, 어떻게 하셨기에 그럴까?

- ① 모든 형벌과 빚을 다 갚아주셨음. 즉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지킬 수가 없는 자들을 속량 하셨음.(갈4:5) (몸값을 다 치르고 주인인 율법에게서 노예를 풀어줌)
- ② 예수는 우리를 위해 “아들의 명분”을 얻어주심. 그리스도를 통해 “아들 자격”을 받게 됨.(상속인으로서 모든 재정적, 법률적 특권이 있는 법적인 용어) ☞ 새로운 삶의 특권.
  -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죄가 우리에게서 옮겨진 것만을 생각하고, 그 아들의 권리와 특권이 우리에게 옮겨진 것은 생각지 못하게 될 때가 있음.
  - ☞ 속죄는 받았지만, 하나님의 호의와 보상을 받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선한 삶을 살아야함. (사형수 사면과 방면의 예시)

▶ 우리의 장부는 말끔하게 정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거기에 자신의 의를 적기까지 하심. 우리가 받을 상속은 따내야 할 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물임**.



## ■ 성령의 일 ■

- ▶ 이 세상에 오신 아들은 우리가 법적으로 자녀의 자격을 확보하도록 하시는데 반해서 성령은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심.
- ▶ 성령은 파격적으로 주관적인 경험을 하게 하심. 그것의 표지와 특징은 무엇일까?
- ① 성령은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심. (krazdon: 큰 울부짖음)은 깊고 심오한 열정과 감정을 나타냄.
  - ② “부르게 하시느니라”는 우리의 기도생활을 가리킴. 기도는 따뜻함과 열정과 자유로움이 가득 찬 행위임.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자연스럽고 실제적임.
  - ③ “부르게 하시느니라”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암시함. 아이는 문제가 생기면 저절로 아빠를 부름. 성령의 일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감지함.
  - ④ “아바”는 “아빠”라는 뜻의 유아어로 사랑과 용납을 확인하는 용도로 쓰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다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강력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음.
- ▶ 아들의 일은 외부에서 우리에게 행해졌기에, 느껴지지 않을 수 있으나, 성령의 일은 우리 내부를 향해서 이루어진 일이며,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지성과 감정을 온전히 감동시켜 이루신 일임. (아들과 성령은 나누어질 수 없고, 하나가 다른 하나를 감추지도 않음.)

## ■ 자녀 됨의 특권 ■

- ▶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 각자가 “유업을 받을 자”라는 뜻임. (갈4:7)
- ▶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매일 확신과 담대함이 함께 함. 우리는 누구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리 아버지가 다 관장하심.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임)
- 온전하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은 우리가 자녀 된 것으로 이길 수 있음. (우리가 불순종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 상당 부분이 바로 이 두려움임)
- ▶ 자녀 됨의 놀라운 사실은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 예우 받는 다는 것임. (우리는 마치 예수님처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대접 받음)
- “아바”라는 그리스어가 아닌 아람어 표현을 바울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표현으로 아버지와 대화하셨기 때문임. 예수가 가지신 권한을 우리가 법적으로 물려받았다고 거침없이 주장하는 것임.
- ▶ 아들 됨을 깊게 누리기 위해 우리는 몇 걸음 더 나아가야함.
- ① 아들이 하신 일을 알아갈 시간을 따로 구분해야함.
    -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함. (기도를 성경연구와, 성경연구를 기도와 연결시켜야 함)
  - ② 아버지께 자발적으로 온종일 “부르짖어야”함.
    - 이렇게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인 것을 확신시켜주시고, 우리 마음이 삶을 변화시키는 확신으로 가득 차게 하심.

### 묵상을 위한 질문

1. 이 본문에서 나를 가장 흥분시킨 것은 어떤 대목인가?
2. 나는 양자됨을 **이해하고 경험**했는가?  
어떻게 하면 아들의 일을 더 깊이 묵상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요청하여 나의 열정을 더할 수 있는가?
3. 아들이 아닌 종으로 살 위험이 가장 높을 때는 언제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친 아들딸이라는 생각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주축을 이룬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됨은  
창조의 정점이며 구속의 목표이다.

- Sinclair Ferguson,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 Children of the Living God> -